



광주비엔날레가 서울, 타이베이, 쾰른,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도시에서 다국적 프로젝트 마련한 전시 '메이투데이'가 내달 14일부터 광주에서 확장, 재편돼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메이투데이-민주주의의 봄' 전시 전경.



〈광주비엔날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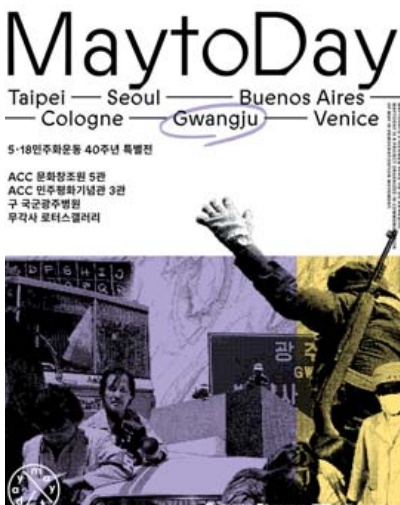
국경 넘어 광주정신 동시대성 탐색한 전시들...다시 광주로

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 광주展

내달 14일부터 ACC·옛 국군광주병원·무각사 등서
서울·타이베이·쾰른 순회...타 도시들과 연대 도모
GB커미션 대규모 신작 선공개...내년 본전시 확장

'40년이 흐른 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5·18, 광주정신...'
지난 6월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메이투데이(Maytoday)-민주주의의 봄' 전시는 역대 광주비엔날레 작품작들을 다시 꺼내어, 예술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기획자 우테 베타 바우어가 기획했으며, 5개국 작가·연구자 26명(팀)이 참여해 190여점에 달하는 출

품작을 선보였다.
이처럼 5·18과 광주정신의 동시대성을 탐색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전시는 서울 뿐 아니라 대만 타이베이, 독일 쾰른 등지에서 열렸다. 이 전시들은 광주비엔날레의 다국적프로젝트 '메이투데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세계 곳곳을 돌고 온 '메이투데이' 전시가 광주에서 다시 공개된다.
광주비엔날레는 다음달 14일부터 11월29일까지 '메이투데이'의 광주 전



시를 연다.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구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당초 9월 계획된 전시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메이투데이'전은 지난 5월 타이베이(5월1일-7월5일)를 시작으로 6월 서울(6월3일-7월5일), 7월 쾰른(7월3일-9월27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는 서울, 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쾰른의 전시들을 한데 모아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축적돼온 광주정신에서 비롯한 다양한 시선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각 도시에서 진행됐던 전시들은 ACC 문화창조원 5관과 민주평화기념관 3관에 걸쳐 펼쳐진다.
5·18에서 비롯된 각 전시의 주제들, '민주주의의 봄'(서울), '오월 공-감: 민주중적중류'(대만), '광주 레슨'(쾰른), '미래의 신화'(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메이투데이'의 기획의도였던 민

주주의 정신의 동시대성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에서 선보였던 목판화 전시는 보다 확장된 규모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항쟁을 증언했고, 현재는 운동의 기억들을 매개하는 역할로서의 목판화 작품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2018광주비엔날레 당시 출범, 세계적인 작가들이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 시민정신 등의 가치를 승화시킨 신작을 선보였던 GB 커미션은 올해 '메이투데이'에서 일부 공개된다. 올해는 2018년 당시 호평을 이끌어낸 기존 작품들이 다시 재현, 확장돼 소개됨과 함께 대규모 신작을 공개한다.
2018년 GB커미션에 참여한 마이크 넬슨의 작품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과, 2018광

주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출품했던 카테르 아티아의 작품 '이동하는 경계들'이 2년 만에 구 국군광주병원에서 다시 전시된다.
여기에 시오타 치하루, 호 추 니엔의 신작이 더해지며, 임민욱 작가는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된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를 ACC 민주평화기념관 3관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는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해온 동시대 예술의 산실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다른 도시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동시대 예술을 통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기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maytoday.org) 참조.
/정겨울 기자

AI와 만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미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내달 5일까지 사전 등록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 그리고 미래 광주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광주시는 다음달 7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를 주제로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을 연다.
포럼은 유네스코 본부 데니스 벡스 UCCN 창의국장과의 해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계자, 미디어 아티스트, 공학자 등이 모여 인공지능을 적용한 미디어아

트 창의도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다.
7일 오전 10시 유네스코 본부 UCCN 네트워크 데니스 벡스 창의국장과의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김종원 원장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미디어아트와 AI'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며, 3부 종합토론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와 AI, 예술 그리고 관광'을 주제로 전체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한다. 내달 5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등을 통해 사전 등록자에 한해 계정 정보를 전송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전남대 AI융합대학이 공동주관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광주관광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조선대, 목포대가 후원한다.
/정겨울 기자

메세나 정신과 만난 청년작가들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 '빛2020'展
부지현·임용현·홍기원·정재훈 선정



하정웅(사진) 광주시립미술관 명예예관장의 메세나 정신과 발굴육성의 뜻을 기리며 매년 전국 각 지역의 청년작가들을 소개하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이 올해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이 전시가 2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제20회 하정웅청

년작가초대전 '빛2020'을 오는 11월29일까지 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연다.
최종 선정된 이들은 부지현(제주), 임용현(광주), 홍기원(경기), 정재훈(대구) 등 4명의 작가다.
제주도 출신인 부지현 작가는 전시장에 비물질적 공간과 결합시킨 새로운 공간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일상의 공간을 떠나 무의식의 세계 또는 과거 기억의 어느 지점을 상기시킨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용현 작가는 오락적이고 소비적 일회성을 강조한 디지털 이미지와 함께 그 이면에

위험적 목격성이 내재해 있는 미디어의 순간성과 부정적 시각을 작품에 담아 현대인과 동시대 모습을 보여준다.
경기도의 홍기원 작가는 개인과 사회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는 작가이다. 그는 사회 속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억, 사회 구조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면들을 공간 속에 영상과 설치를 통해 보여준다.
대구의 정재훈 작가는 조각가로서 경험한 삶과 예술의 범위 안에서 작품 제작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고민과 그 근원적 형태를 찾으려 한다. /정겨울 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능력을 JOB이라!! 취업을 JOB이라!!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 고용복지센터 방문상담 필요
센터 상담일정으로 접수문의를 서두르십시오!!

3차원 실내건축설계

최근 3개년
자격취득률 308%

자동차 엔진정비실무

작년도 수료생
자격취득률 100%

냉동공조설치

광주지역 유일하게
전액국비지원

전기공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과
동일한 실습장 완비

· **자부담 일부 과정**

※ 고용복지센터 방문상담 필요
일부 자비 부담있음. 센터 상담일정으로 접수문의를 서두르십시오!!

중식조리(실기)

2개월 과정
오전반 / 오후반 선택 가능!

제빵(이론+실기)

4개월 과정(야간반 운영)
취업준비자+재직자 참여가능~

<http://www.honam.or.kr>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호남직업전문학교 ☎062)605-8000